

# 朝鮮 文人들이 바다를 통해 본 것들

## -‘觀海’를 제재로 한 한문 산문에 대한 考察-

김 광 년\*

< 目 次 >

I. 서론	1. 자기 수양과 학문 연마의 계기
II. 바다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논의	2. 바다의 豪放한 氣像과 養氣
III. 한문산문에서 ‘觀海’의 형상화와 그 특징적 국면	IV. 결론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조선 시대의 한문 산문 작품 중에서 ‘觀海’를 제재로 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바다는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영원불변의 恒常性を 지닌 존재인 동시에 浩然之氣를 기를 수 있는 광대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물리적인 관찰 자체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邵雍의 觀物說을 수용하면서도 주체적 시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 결과로 파악된다.

이러한 바다의 이미지는 ‘觀海’를 제재로 한 한문 산문 작품들의 내용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조선 시대의 ‘觀海’ 제재 한문 산문 작품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조선의 문인들은 바다의 형상을 도덕적 자기 수양과 학문 연마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둘째, 바다의 광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light1979@korea.ac.kr

대하고 드넓은 모습에 주목하여 이를 개인의 養氣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주제어】 觀海, 바다, 漢文散文, 豪放, 養氣

## I. 머리말

어느 시대에나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존재이다. 우리는 바다를 보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한편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다. 특히나 지역 간 이동이 수월하지 않았던 전근대 시대에는 바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었고, 내륙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두 번 바다를 보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근대 문인들이 바다를 보았을 때의 감정은 현대인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파장이 컸다.

바다는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미 그것을 본 사람에게는 다양한 감정과 사색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 문인들이 바다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이미지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영원불변의 존재라는 이미지이다. 여기에는 바다의 恒常性도 포함된다. 즉 조선 문인들은 바다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그 水量 또한 일정하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바닷물의 수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전근대인들의 오해<sup>1)</sup>이기도 하나, 이러한 관념은 바다에 지속성, 꾸준함 등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여기에는 바다가 인간이 예측하거나 형언할 수 없는 대상이며, 또한 만물의 생성 및 변화의 이치를 포괄하고 있는 사물이라는 생

1) 상식이겠지만 바닷물은 증발과 降雨 등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하며 그 총량 역시 일정하지 않고 변화가 많다. 더군다나 현대에는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해 極地의 얼음이 녹으면서 全球적으로 바다의 수위가 상승하는 등 전에 없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각 또한 담겨 있다. 바다에 대한 이와 같은 이미지는 학문에 대한 지식인들의 熱意에 類比되어 많은 문인들이 바다와 같은 태도로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관해' 제재의 작품들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둘째는 광대한 존재라는 이미지이다. 바다는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 너머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sup>2)</sup> 광대한 바다를 보거나 생각하며 조선의 문인들은 호방한 기세를 느꼈고, 이를 자신의 浩然之氣를 배양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동아시아에서는 호연지기를 배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수 유람을 통한 養氣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바다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매우 적합한 장소의 하나였다. 다시 말해 전 근대 문인들은 바다를 철학적 자기 수양의 장으로도 이해하였던 것이다. 아래에서 상세히 검토하겠지만 '관해'를 제재로 한 작품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조선 시대의 문인들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를 미적 향유의 대상으로 삼는 한편으로, 바다 자체에 대해 혹은 바다를 계기로 여러 방면으로 사색과 탐구를 진행함으로써 정신적 영역의 폭과 깊이를 더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성취는 다양한 문학 장르로 형상화되어 엄청난 분량의 작품들이 지금까지 남아 조선 시대 문인들이 바다에 대해 어떤 관심을 보였고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바다가 이렇게 문학 작품의 주요 소재로 활용되다 보니 학계에서도 문학과 바다와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방면으로 전개되어 왔고, 한문학 및 고전문학 분야에서도 여러 학회에 의해 기획주제로 심도 있게 다루어진 바 있다.<sup>3)</sup>

2) 특히 동해의 경우 그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많지 않은 동해의 특성에 기인한다. 또한 조선의 문인들은 서해 너머에는 중국 대륙이, 남해 너머에는 일본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가 그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인식되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바다 관련 문학작품들을 살펴 보면 바다의 광대함은 주로 동해를 목격한 경우에 언급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바다라는 소재가 워낙 다양한 층위에서 문학적으로 소비되어 온 만큼 아직 연구자의 시야에 포착되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그중의 하나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觀海’, 즉 바다 구경을 제재로 삼은 작품들이다. ‘관해’는 단순히 바다를 보고 즐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동아시아에서 ‘관해’는 유구한 사회적, 문화적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 왔다. 밤낮없이 흐르는 물을 보고 거기에서 道의 속성을 발견하여 찬탄했던 孔子<sup>4)</sup>나, 바다를 본 사람에게 어지간한 물은 물이라고 내세울 수 없을 것이라 하여 그 광대함을 칭송했던 孟子<sup>5)</sup> 등,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심미적으로 향유하는 한편으로 이를 통해 인생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행하였던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일정하게 참고하여, ‘관해’를 제재로 한 한문산문 작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 대상을 산문으로 한정할 이유는 바다를 제재로 삼은 한문학 장르 중에서 한문 산문은 한시에 비해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아 왔으며, 산문이 시에 비해 사색의 결과를 보다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관해’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중심에 놓음으로써 전근대 문인들의 바다에 대한 사색의 깊이를 드러내고자 한다.

3) 일례로 한국한문학회는 2009년에 ‘한국한문학과 바다’, 2018년에 ‘물’을 주제로 기획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2012년에는 한국고전연구학회에서 ‘한국고전문학과 바다’ 주제의 기획학술대회가 있었다.

4) 『論語』 「子罕」,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이에 대해 朱熹는 “天地之化, 往者過, 來者續, 無一息之停, 乃道體之本然也. 然其可指而易見者, 莫如川流. 故於此, 發以示人, 欲學者時時省察, 而無毫髮之間斷也.”라고 해설하였다.

5) 『孟子』 「盡心章句上」, “孟子曰: 孔子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 故觀於海者, 難爲水; 遊於聖人之門者, 難爲言.” 朱熹는 이 부분에 대해 “此章言: 聖人之道, 大而有本, 學之者必以其漸, 乃能至也.”라고 해설하였다.

## Ⅱ. 바다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논의

우리는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체의 감각 기관인 눈을 통해 보는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조선의 문인들은 눈으로만 사물을 보게 되면 대상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좀더 특별한 태도로 대상을 관찰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다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는데, '관해'를 제재로 한 한문산문 작품들에서는 특히 감각 기관에 구애되지 말고 '마음의 눈'을 통해 바다의 진면목을 파악할 것을 주문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먼저 凝窩 李源祚(1792-1871)의 경우를 보자. 그는 바다를 구경하기 위해 떠나는 尹宗燮을 전송하며 쓴 글에서 '관해'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풀어내었다. 이 작품은 우선 바다는 "끝이 없다[無涯]"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참신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내가 일찍이 바다를 본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그 만의 하나라도 형용할 수 없어서 다만 끝이 없다고 할 뿐이라고 한다. 무릇 끝이 없다고 하면 바다를 다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눈이 다하는 곳이 바다의 끝이니 어찌 그 끝없음을 보았겠는가! 이는 형체에 국한된 것이다.

그러므로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본다면 비록 태산의 꼭대기에 오르건 博望侯(張騫)의 뗏목을 타건 짧은 거리를 갔다 오건 간에 모두 장애가 있을 것이요, 끝이 없는 것으로 끝이 있는 것을 본다면 八荒의 바깥, 六合의 안이 모두 내 사방 한 치 마음 안에 들어와 눈앞에 망라되어 있을 것이니, 이를 안다면 문 밖을 나서지 않고서도 천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찌 형체와 지역에 국한될 수 있겠는가.<sup>6)</sup>

6) 李源祚, 『凝窩先生文集』 권13, 「送尹城之宗燮表叔觀海序」, 한국문집총간 속121, p.268, “余嘗聞諸觀海者, 不能形容其萬一, 而直曰無涯而已. 夫無涯足以盡海, 然眼之所窺, 卽海之涯也, 曷嘗見其無涯也哉! 此局於形也, 故以有涯而觀無涯, 則躡步泰山之頂, 乘博望之槎, 莽蒼步武之間, 皆有障礙, 以無涯而觀有涯, 則八荒之外六合之內, 盡入吾方寸之中, 而森羅於眼前, 知此則可以不出戶而知天下矣. 更安有形與地之可局也?”

그는 “끝이 없다”는 말 자체가 이미 유한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육체적 시야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음으로 바다를 보고 이를 통해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역이나 형체에 얽매어 대상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신체의 눈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요지이다. 이를 좀더 확장시킨다면, 그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가 조선처럼 좁은 나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온 세상을 마음에 다 담아낼 수 있고, 바다같이 육체의 눈으로 보았을 때 끝없이 보이는 대상도 마음으로 받아들여 원대한 기상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의 인물인 海藏 申錫愚(1805-1865)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했을 때 대상을 곡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옛날 내가 어항을 길렀는데, 물을 저장하고 돌을 길러 계단과 마당 사이에 두었다. 아침 해가 그것을 비추면 빛이 젖어들어 붉은 색이 일렁이니, 이웃의 어린아이가 굽어보고는 해가 화분에서 떠오른다고 하였다. 지금 바다에서 해를 바라본다면 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땅의 기운이 맑고 흐릿하며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며 떠오르는 해 사이를 비추고, 둥근 햇무리가 붉게 빛나는데, 시력이 다하는 곳에서 아찔하게 기운을 빼앗기니, 마침내 해가 바다에서 뜬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해가 화분에서 뜬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곤과 악어가 출몰하는 듯하면 나는 그것이 피라미들이 내 화분에서 헤엄치고 있기 때문임을 알며, 蓬萊山이 우뚝하면 나는 그것이 기이한 돌들이 내 화분에 담겨 있기 때문임을 안다. 바다란 하나의 물고기 화분인가. 사람이 큰 물고기 화분을 어찌 헤아릴 수 없단 말인가.)

7) 申錫愚, 『海藏集』 권17, 「海說」, 한국문집총간 속127, p.613, “昔吾蓄一魚盆, 貯水養石, 置之階庭間, 朝暉照之, 涵深漾紅, 鄰之小兒, 俯而見之, 以謂日出於盆, 今夫海之觀日, 何以異是, 地氣清濛, 風濤盪潏, 曠隔升旭, 圓暈紅孛, 目力所窮, 眩鑠奪氣, 遂謂之日出於海, 是何異小兒之謂日出於盆耶, 鯢鼉出沒, 吾知其游鱗之泳吾盆也, 蓬壺錯峙, 吾知其奇石之供吾盆也, 海者是一大魚盆乎, 人於大魚盆, 何不可測度之有!”

물고기 화분의 비유는 눈이 일으킬 수 있는 착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물의 크기나 배치 등에 따라 인간이 눈으로 인식하는 외부 세계는 얼마든지 그 진상을 왜곡할 수 있다. 당장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암흑 세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다고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바다를 바라보면 저 멀리 지평선 너머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평선 너머에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신석우가 주장하는 바는 결국 눈이라는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毅菴 柳麟錫(1842-1915)의 경우를 본다. 그는 친구인 沈相瓚이 자신의 齋舍 명칭을 '觀海齋'라 정하고서 銘을 부탁하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지어 주었다.

사물로써 바다를 살펴보면	以物觀海,
단지 형색만 성대하고	徒壯形色;
도로써 바다를 살펴보면	以道觀海,
변화가 극에 달하며	變化其極;
눈으로써 바다를 살펴보면	以目觀海,
단지 눈이 미치는 곳만 보이고	只視所及;
마음으로 바다를 살펴보면	以心觀海,
헤아리지 못하는 곳까지 미친다네	及其不測. <sup>8)</sup>

여기에서 유인석은 '관해'의 방법을 物, 道, 目, 心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시 사물의 형상 인식(物, 目)과 사물에 담긴 도체득(道, 心)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인용문에서 '다만'이라는 뜻을 가진 두 개의 글자 '徒'와 '只'만 놓고 보더라도 그가 사물의 형상만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신석우의 경우처럼 감각 기관의 오류에 빠지거나

8) 柳麟錫, 『毅菴先生文集』 권44, 「觀海齋銘」, 한국문집총간 339, p.199.

물리적 시야에 국한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이다. 대신 그는 도와 마음을 통해 바다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이는 이원조의 경우처럼 '마음의 눈'을 통해 감각 기관의 한계를 넘어 대상(여기에서는 바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감각 기관인 '눈'이 아니라 추상적인 '마음의 눈'으로 바다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北宋 시대의 유학자인 邵雍의 觀物論을 연상시킨다. 소옹은 『皇極經世書』 「觀物」 편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층위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무릇 사물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치로 보는 것이다. … 성인이 만물의 사정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성인이 '반대로 볼[反觀]' 수 있음을 말한다. 반대로 본다는 것은 나로써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로써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물로써 사물을 봄을 말한다. 이미 사물로써 사물을 볼 수 있는데 또 어찌 그 사이에 내가 있겠는가.9)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 外物을 인지하는 것인데 이는 소옹이 생각하기에 가장 낮은 층위의 사물 인식이다. 감각기관을 통한 인지는 形而下의 표면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마음의 눈, 나아가 이치의 눈으로 사물을 관찰해야만 그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소옹은 주장한다. 이치의 눈으로 사물을 관찰한다는 것은 소옹이 이야기한 '반관', 즉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 사물을 파악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원조의 논의를 비롯하여 조선 문인들의 '관해' 논의는 '마음의

9) 邵雍, 『皇極經世書』, 「觀物內篇」, 사고전서본, “夫所以謂之觀物者, 非以目觀之也. 非觀之以目, 而觀之以心也. 非觀之以心, 而觀之以理也. … 聖人之所以能一萬物之情者, 謂其聖人之能反觀也. 所以謂之反觀者, 不以我觀物也. 不以我觀物者, 以物觀物之謂也. 既能以物觀物, 又安有我於其間哉!”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은 高懷民 저, 曠心환역, 『소강철의 선천역학』, 예문서원, 2011, pp.66-68 참조.



눈'으로 바다의 진면목을 파악해야 한다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소옹이 자기 자신마저도 객관화시킨 시각으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 했다면, 이 원조의 경우는 '나'라는 주체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나'의 개성적 시각으로 사물을 파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주체적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원조 등의 논의는 소옹의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조선 문인들의 '관해'에서 빈번히 확인되는 특징적 면모라 정리할 수 있다.

### Ⅲ. 한문산문에서 '觀海'의 형상화와 그 특징적 국면들

#### 1. 자기 수양과 학문 연마의 계기

'관해'를 제재로 한 한문 산문에서 우선 看取되는 특징은, 바다의 형상을 인간의 윤리적 상황에 類比하여 자기 수양 및 학문 연마의 계기로 삼으려는 태도가 자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보았던 바다의 영원성, 지속성의 이미지와 연관된다.

조선 전기의 문인인 虛白堂 成俔(1439-1504)은 동해의 萬景臺에서 바다를 구경하고 그 감상을 「萬景臺觀海濤賦」라는 賦 작품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이 작품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반부에서의 바다에 대한 묘사다.

바다는 천지간에 있는 것 중에서	海於天地
그 크기로는 짝할 것이 없고,	其大無匹
물은 만물 중에서	水之爲物
성질이 본래 유순하고 은밀하다네.	性本柔逸
(그런데) 누가 그 안에서 주장하여	孰主張於中間
갑자기 찢기고 무너져서는 범람하여	奄奔崩而泛濫
그 형태가	其爲形也
맑고 팔팔 흐르며	粼粼泌泌
도도하게 흘러넘치고	滔滔汨汨

맑게 넘쳐흐르며	瀏濫滄沱,
파도가 시끄럽게 부딪치고 솟아올랐다 가라앉으면서,	澎瀾蕩涌,
기쁜 것이 아닌데도 뛰어오르고	非喜而躍,
화난 것이 아닌데도 떨쳐 일어나며	非怒而拂,
걱정하는 것이 아닌데도 두렵고	非憂而怛,
두려운 것이 아닌데도 내달리며	非懼而怵,
언 것이 아닌데도 차갑고	非寒而凜,
뜨거운 것이 아닌데도 끓어오르는가.	非熱而沸,
어떻게 해서 뛰어오르며	胡然而騰,
또 어떻게 해서 가라앉는가.	亦胡然而沒? <sup>10)</sup>

바닷물에 대한 성현의 묘사는 일반적인 강이나 시내에 대한 묘사와는 그 스케일이 다르다. 민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원동력은 알 수 없지만 끝없이 높이 솟았다가 깊이가 가라앉기도 하여 그 변화를 인간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인간은 그저 거대한 바다—이는 ‘자연’이라는 말로 환언 가능하다—와 그 변화무쌍한 모습 앞에서 경탄하고 또 경탄할 뿐이다. 대체 그 원동력은 무엇이며, 인간은 왜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가? 인용문의 마지막 두 구의 연속된 의문문은 그러한 작자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반부의 묘사는 이렇게 바다에 대해 상대적으로 왜소한 존재인 인간 스스로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마치 살아있는 듯한 바다의 에너지, 생명력이라고 착각—바닷물 자체는 생명체가 아니라는 점에서—할 정도의 그 거대한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다 앞에 선 인간은 바다를 통해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는 작품 끝부분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10) 成倪, 『虛白堂文集』卷1, 「萬景臺觀海濤賦」, 韓國文集叢刊 14, p.418. 참고로 산문 연구에 부 작품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고의 압축보다는 구체적 전개를 우위에 둔다는 점에서 부는 산문에 가까운 장르이며, 따라서 산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운문과 산문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윤채근, 『차이와 체계』, 월인, 1999를 참조할 수 있다.

하물며 여기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況於此而有得，
무엇이든 통달하지 못할까	其何不達？
그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그보다 더 작은 것이 없는 것	大無外而小無內，
이것이 道體의 근본과 말단이라	是道體之本末。
그 원천을 궁구하여 깊이 들어간다면	若能窮其源而深入，
써도 다함이 없고 파내도 마르지 않을 것이니	用之無盡而酌之不竭
무릇 그러한 후에 침잠하여 점차 젖어간다면	夫然後浸潛漸漬，
七十子の 堂에 오르고 夫子의 室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可以升七十子之堂而 入夫子之室 <sup>11)</sup>

변화무쌍하고 가없는 바다의 모습에서 작가가 읽어낸 것은 聖賢의 뜻과 기상이며, 그 핵심 키워드는 ‘達’이다. 작가는 바다를 통해 세상의 이치<sup>12)</sup>를 터득해야 함을 설파하였고, 그러한 인격이야말로 ‘達人’으로 지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달인’의 성격이다. 성현이 생각하는 ‘달인’은 ‘觀海’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그는 바다의 온갖 면모들을 목격하고,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이치, 즉 ‘도체’를 발견한 사람이다. 바다의 어떤 모습에 주목하여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 지는 순전히 바다를 바라보는 개인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인식에 도달했을 때, 작품 전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賦라는 장르적 특성에 따른 浮華한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道體’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는 철학적 예술로 읽히게 된다.

한편 바로 다음 세대인 旅軒 張顯光(1554-1637)의 경우에도 ‘관해’ 제제의 작품에서 이러한 특징이 발견된다. 그는 崔暉의 “들은 것과 본 것이 잘 부합하는 것을 나는 바다에서 얻었다(所聞與所見克符者，吾於海得之).”라는

11) 같은 글.

12) 성현은 작품 본문에서 이를 ‘道體’로 표현하였다. 그것은 물론 해당 인용 부분에서 여러 차례 『論語』와 『孟子』 등의 유가 경전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통해 볼 때 유가의 논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말에 촉발되어 바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논설문을 짓게 된다.

일반적으로 '관해'를 제재로 하거나 바다를 제재로 한 작품들은 바다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하는 반면에 인간의 장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언급이 적다. 바다의 포용력과 넓은 기상을 강조하면서 그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지만 상대적으로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인간은 어느 때나 약한 존재이며 본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 윤리적으로 취약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본마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보통의 논리 전개이다. 그러나 장현광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인간의 긍정적 가능성을 우위에 두고 있다. 해당 내용을 잠깐 인용해 본다.

아, 천지와 아울러 참여해서 三才가 된 것이 사람이요, 한 몸으로 만물의 으뜸인 것이 사람이다. 그 도로 말한다면 어찌 사람보다 큰 것이 있겠는가. 사물은 만 가지가 있는데 바다가 가장 크며, 가장 큰 바다를 천지는 품을 수 있고, 천지는 만물을 품을 수 있는데 사람 또한 천지 만물을 한 치 마음 속에 품을 수 있다. 그러니 바다가 크다고 해서 어찌 우리 인간의 큰 것만 하겠는가. 인간이 스스로를 작게 할 따름이다.<sup>13)</sup>

장현광은 天地人 三才를 언급하면서 인간이 이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존재임을 우선 이야기하였고, 물리적으로 가장 큰 것은 물론 천지와 바다이지만, 인간은 이들 모두를 마음에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견지에서는 바다보다 인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다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지만 인간의 긍정적 가능성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바다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다보다도 더 넓은

13) 張顯光, 『旅軒先生續集』 권4, 「海說」, 한국문집총간 60, p.337, “嗚呼, 竝天地參爲三才者, 人也, 以一身而首乎萬物者, 人也. 以其道而言之, 夫豈有大於人者乎! 物有萬而海爲最鉅焉, 海最鉅而天地能藏焉, 天地能藏萬物, 而人又能藏天地萬物於方寸之中, 則海之大, 其何有於吾人之大乎? 但人自小耳.”

것이라는, 인간에 대한 긍정과 애정을 읽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바다를 직접 눈으로 본 이후 그의 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공교롭게도 장현광은 '관해' 제재와 관련하여 바다를 보기 전에 지은 이 작품과 더불어, 실제로 바다를 본 뒤에 지은 「觀海說」이 있어서 전후의 태도 변화를 비교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경우는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도 드문 것으로 '관해' 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장현광은 47세 되던 1600년(선조 33), 동해의 興海를 방문하여 드디어 바다를 보게 되었다. 바다를 보기 전의 '海說'과 바다를 본 후의 '해설'이 가장 극명하게 달라진 지점을 꼽아 본다면 역시 바다에 대한 묘사 부분이다. 기실 바다를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문헌을 통해서, 혹은 상상을 통해서 바다에 대해 묘사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장현광은 바다에 대한 선부른 상상을 자제하였다가, 실제로 바다를 본 이후에는 자신이 보고 느낀 바다를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내가 이날 본 것을 입과 혀로 형용하고 붓과 먹으로 나타내려고 한다면 비록 긴 들보와 같은 필력과 조화에 참여하는 문장으로도 그 실질을 칭송하기 어려우리라. 그 크기를 말하자면 끝이 없고, 그 깊이를 말하자면 헤아릴 수 없고, 그 풍부함을 말하면 다함이 없고, 그 유구함을 말하자면 만고에 항상 그러하고, 그 양을 말하자면 비록 하늘까지 넘치는 물과 흙을 태우는 가뭄이 오더라도 더해지고 줄어듦을 볼 수 없으며, 그 웅장함을 말하자면 천하에 형체가 있고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도 그와 더불어 짝할 수 없다.<sup>14)</sup>

그런데 그의 묘사는 다른 문인들의 묘사와는 사뭇 성격이 다르다. 바다의 묘사에 흔히 동원되는 의성어나 의태어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바다 앞에서 자신이 생각한 것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이 인

14) 장현광, 『旅軒先生續集』 권4, 「觀海說」, 한국문집총간 60, p.337, “欲以是日所觀者, 形之以口舌, 狀之以翰墨, 則雖用如長杠筆力, 參造化文字, 亦難於稱其實矣. 言其大則無際, 言其深則不測, 言其富則無盡, 言其悠久則萬古常然, 言其量則雖滔天之水, 焦土之旱, 未見其增損, 言其壯則盡天下之有形有氣, 罔能與之侔者焉.”

용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다에 압도된 장현광의 심리 상태이다. 그는 홍해군의 지형 상 방해물 없이 눈에 가득 들어오는 바다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sup>15)</sup> 어떤 문장으로도 자신이 본 것을 모두 표현해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한 바다를 수용하기 위해 장현광은 다시 철학적 개념을 들고 나온다. 이 모든 것들은 ‘太極’에서 연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sup>16)</sup> 하지만 이 태극은 형이하학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눈으로 보아야 볼 수 있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태극의 존재를 꿰뚫을 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저 광대한 바다마저도 작은 존재로 인식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현광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바다에 대한 사색으로 화제를 전환한다.

이 바다가 이렇게 크고 깊은 까닭을 궁구해 보면,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고 모으고 모아 이에 이른 것인가. 만약 그 根源을 궁구한다면 바로 곧 江河와 시냇물이다. 물에 제사지낼 때 강을 먼저 하고 바다를 나중에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우리의 배움에도 이 도리가 있으니, 性を 다하고 命을 아는 것은 반드시 효도하고 공경하고 충실하고 믿음직스러움 근본하며, 신을 궁구하고 조화를 아는 것은 또한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응대하는 데 말미암는다. 효도하고 공경하고 충실하고 믿음직스러움은 애초에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나 성을 다하고 명을 아는 데 이를 수 있게 해주고,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응대하는 일은 다만 淺近하여 행하기 쉬운 예절이나 신을 궁구하고 조화를 아는 데 이를 수 있게 해주니, 멀고 크고 높고 깊은 데 뜻을 둔 사람이라면 참으로 마땅히

15) 같은 글, “余生未見海, 乃於今年春, 始往觀焉. 所觀乃興海郡境也, 郡在東海之隩, 地勢欠縮, 左右障礙, 恨不能極目以得夫大洋全體也, 雖然亦可以見其大概矣.”

16) ‘태극’에 대한 논의는 장현광 철학 사상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정병석, 「旅軒 張顯光의 太極에 대한 새로운 해석」, 『민족문화논총』 54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3; 최원진, 「旅軒 哲學에서 太極의 包括的-一原性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27집, 한국유교학회, 2006 등이 있다.

가깝고 작고 낮고 얇은 일에 종사하여야 하고, 가깝고 작고 낮고 얇은 일을 하는 자는 또한 멀고 크고 높고 깊은 것을 채우지 않을 수 없으리라.<sup>17)</sup>

그가 보기에 모든 하천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은 결국 작은 강과 하천이 모여 형성되는 것이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고에 근거하여 그는 바다의 형성 과정을 학문의 과정에 유비한다. 바다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하천들의 물이 한데 모여야 하는 것처럼, 학문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보다 작은 실천들이 점진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孟子가 말한 바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으니, 군자는 도에 뜻을 둬서 점진적으로 성취하지 않으면 통달하지 못한다.”<sup>18)</sup>라고 한 바로 그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작품 마지막에서 “멀고 크고 높고 깊은 도에 뜻을 둔 자는 진실로 가깝고 작고 낮고 얇은 일에 종사하여야 하고, 가깝고 작고 낮고 얇은 일을 하는 자는 멀고 크고 높고 깊은 도를 채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칫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쉬운 일들, 이를테면 『小學』의 ‘灑掃應對’ 같은 것들을 부지런히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도의 진면목에 다가갈 수 있고 학문의 완성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장현광은 바다를 직접 본 후에는 좀더 겸허한 태도로 바다가 그러한 것처럼 기본적인 도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학문의 완성이 시작된다고 파악했던 것이다.

이처럼 바다의 형상을 인간의 윤리적 상황에 類比하여 자기 수양과 학문 연마의 계기로 삼으려는 경향은 전반적으로 볼 때 조선 전기 내지는

17) 같은 글, “究此海之所以爲是大是深, 則以其能不擇細流, 積之積之, 以至於是乎! 若究其源, 則即是江河與溪澗也. 故祭於水者, 先河而後海, 其以此也. 於吾學, 亦有是道焉, 盡性知命, 必本於孝悌忠信, 窮神知化, 亦由於灑掃應對. 孝悌忠信, 初非高遠難行之事也, 而可以達於盡心知命; 灑掃應對, 只是淺近易行之節也, 而可以至於窮神知化, 則志遠大高深者, 固當從事於近小卑淺, 而爲近小卑淺者, 又不可不充之於遠大高深也.”

18) 『孟子』 「盡心章句上」, “流水之爲物也, 不盈科, 不行. 君子之志於道也, 不成章, 不達.”

중기의 작품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성리학 이념에 투철했던 학자들이 바다를 도덕적 태도로 읽어냄으로써 '관해'를 자기 수양의 계기로 삼으려는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 2. 바다의 豪放한 氣像과 養氣

유람 행위는 그 자체의 심미적 쾌감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司馬遷의 유람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養氣의 수단이 되어 왔다. 쾌감 그 자체에만 매달리는 것은 유학자들에게 금기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문인들은 '관해' 행위를 직접 실천하거나 그에 대해 고찰함에 있어서도 항상 그 철학적 내지는 윤리적 효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즉 끝없이 펼쳐져 하늘과 맞닿아 있는 엄청난 양의 바닷물, 무엇이든 집어삼킬 기세로 몰아치는 파도를 보면 대부분 그 엄청난 기세에 압도당하게 된다. 전근대 문인들은 이러한 바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에 감탄하는 한편으로 이를 자신의 浩然之氣를 기르기 위한 계기로 삼았다.

1543년(중종 38), 조선 전기의 철학자이자 문인이었던 晦齋 李彦迪(1491-1553)은 지금의 경북 포항 인근의 淸河縣에 세워진 海月樓에 대한 기문을 요청받게 된다. 청하가 이언적의 고향과 가까운 곳이기 는 하지만 그는 해월루에 직접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언적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해월루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아침 해가 물결을 비추고 海霧가 처음 걷히면, 광활하게 펼쳐진 물이 온통 만 리까지 푸르고, 넘실대는 파도는 하늘에 떠서 해를 씻어낼 듯하며, 깊고 넓은 바다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높은 곳에 기대어 보이는 데까지 바라보면 아득하여 마치 허공을 능가하여 바람을 몰고 은하수에 임한 듯하여 사람의 심경이 확연하게 광대하고 광활하게 만드니, 浩然之氣가 천지 사이에 가득 하게 된다. 이는 바다를 잘 보는 것이다.<sup>19)</sup>



작가는 누대에서 보이는 것들 중 큰 것, 즉 중요한 것으로 바다와 달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호연지기를 배양하는 것을 ‘觀海’의 결과로 제시하였다. 이는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설명되는 ‘觀月’<sup>20)</sup>과 나란히 제시되어 분명하게 대비된다. “마음을 상쾌하고 시원하게 하여” 본연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관월’의 역할이라면, “마음을 푹 트이고 광대하게 하여”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 ‘관해’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바다를 구경함으로써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바다가 호방한 기상을 품고 있는 자연물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연적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양기의 의미를 좀더 확장시켜, 누대에서 바다를 구경함으로써 “크고 맑은 덕[弘遠淸虛之德]”을 길러 이를 정치에 베푸는 것이 고을에 누대를 건축하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sup>21)</sup> 이는 ‘관해’의 정치적 효용을 언급한 것으로, ‘관해’라는 행위가 개인의 인격 도야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도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진술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연적보다 한 세대 이후에 생존하였던 拙翁 洪聖民(1536-1594)은 바다 유람을 상당히 많이 한 인물로, 20여 년에 걸쳐 동해, 서해, 남해를 두루 찾아 유람하였다. 관람의 횟수가 많았던 만큼 자신의 ‘관해’ 경험을 『觀海錄』이라는 기록으로 정리하였는데, 이 작품에서 모든 것들을 포용해 주는 바다의 넓은 배포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9) 李彥迪, 『晦齋先生集』 권6, 「海月樓記」, 한국문집총간 24, p.406, “若乃桑暎照波, 煙霧初消, 淼淼漫空, 一碧萬里, 滌漭瀲灩, 浮天浴日, 沖融混漾, 不見涯岸. 憑高而極目, 渺茫邈乎, 如凌虛御風而臨河漢. 使人心境廓然廣大寬平, 而浩然之氣充塞於兩間, 此則觀海之善者也.”

20) 이연적은 ‘觀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같은 글, “至若氣霽坤倪, 雲斂乾端, 水輪轉碧, 暮靄橫白, 水天混光, 星河靉映, 霽色嬋娟, 澄輝交絜. 人在危樓, 愛而玩之, 寄身於清高之域, 而寓目於虛明無盡之境. 杳然如躋絕世絕俗而登蓬瀛, 使人胸次洒落, 查滓爭盡而本然之天, 浩浩於襟靈, 此則玩月之善者也.”

21) 같은 글, “邑有樓觀, 若無關於爲政, 而其所以暢神氣清襟懷, 以爲施政之本者, 亦必於是而得之. 蓋氣爽則慮亂, 視遠則志滯, 君子必有遊覽之所高明之具, 以養其弘遠淸虛之德, 而政由是出, 其所關顧不大哉!”

아, 바다라는 물건은 과연 크다. 산은 때때로 무너지고 땅은 때때로 갈라지지만, 바다는 감히 흐르지도 않으며 감히 다하지도 않아 큰 가뭄이라도 줄어들게 할 수 없고 홍수라도 더할 수 없다. 천지를 번쩍 들어올리고 산악을 뒤흔들며 천만 년을 지내오며 그 크기를 유지하여 그 크음을 지키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물고기와 용을 간직하고 고래를 기르지만 의도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큰 까닭은 못 도량을 모으고 모든 하천을 삼켜 물이 팔팔 흐르고 졸졸 흐르며 굽이굽이 가늘게 흐르는 것이 비록 꺾여 반드시 동쪽으로 가더라도, 감히 바다로 나아가게 되면 바다는 반드시 받아들이고 용납하여 그 크기를 스스로 이루니, 이것이 바다가 바다인 까닭이다.

바다와 천지는 이렇게 나뉘는데, 인간은 그 사이에서 조 한 톨만큼 미미하며, 눈은 우리 좁쌀만한 사람 안에 있는 한 물건이다. 이 몸을 가지고 이 눈을 들고 동서남북의 바다를 다 탐색하여 그 크기를 감상하고 그 크기에 찬탄하니, 이는 좁쌀 하나가 푸른 바다에 필적하려 드는 것이다. 무릇 사람이 천지에 더 붙어 참여한다는 것이 이것인가. 한 치 마음 안에 깊고 드넓은 바다를 받아들여 체인하는 바가 있으면서도 새어나가지 않는다면, 바다를 보는 것이 단지 바다를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신에 크게 유익할 것이다. 감히 서술하여 스스로를 반성해 본다.<sup>22)</sup>

그는 자신의 바다 체험을 시간적 순서에 의해 나열한 뒤, 바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인간이란 천지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이지만 마음으로 바다의 배포를 포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여 ‘관해’의 의미를 찾았다. 결국 홍성민이 이야기하는 ‘관해’는 관람의 대상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 수양에 도움을 주는 존재인 바다를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배포를 받아들임으로써 포용력 있는 인간

22) 洪聖民, 『拙翁集』 권7, 「觀海錄」, 한국문집총간 46, p.529, “噫, 海之爲物, 果大矣, 山有時而崩, 地有時而坼, 海則不敢流, 不敢竭, 大旱不能爲之縮, 大水不能爲之增, 掀天地, 振山嶽, 歷千萬古, 持其大, 守其大而不小變, 藏魚龍, 育鯨鯢而無容心焉. 然其所以爲大者, 以其集衆瀆而吞百川也, 水之潺潺者, 涓涓者, 曲曲細流, 雖折必東, 敢於海而赴焉, 海必納而容之, 自成其大, 此其所以爲海者也, 海與天地, 若是其班, 人於其間, 一粟眇眇, 眼在吾人一粟中之一物, 持此形, 舉此目, 窮東西南北之海而探之, 賞其大, 嘆其大, 此以一粟抗滄海, 夫人之所以與天地參者此乎, 納淵濶告於方寸中, 有所體認, 而不至滲漏, 則觀海非徒觀也, 其有益於身心者大矣, 敢爲之敘以自省.”

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인격 도야 행위인 것이다. 바다를 마음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바다의 장대하고 호방한 기상을 인간의 마음 속에 받아들여 바다와 같은 기상을 지닐 수 있게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것이 바로 맹자의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어지간한 물은 물이라고 하기 어렵다”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한편, ‘관해’를 제재로 하고 있는 한문산문 작품들 중 說류 작품의 경우 ‘관해’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서술이 중심이 되는 반면, ‘記’류 작품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건물 자체에 주로 관심을 두고, ‘관해’ 행위는 부수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된다. 물론 이는 ‘기’라고 하는 한문 산문 문체의 태생적 속성<sup>23)</sup>에 기인하는 것으로 크게 의문을 품을 만한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관해’가 강조된 작품이 있다면 거기에 내재된 작가의 의도를 좀더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閔遇洙(1694-1756)의 「湖海亭記」가 바로 그러한 부류에 귀속시킬 수 있는 작품이다.

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를 본 사람에게 (어지간한 것은) 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朱子께서 이를 풀이하여 “본 것이 이미 크니 작은 것은 볼 만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천하의 물은 호수, 강, 내, 도랑에부터 보, 연못, 실개천, 시내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또한 많은데, 이것들은 모두 각각 뛰어난 경치를 차지하여 볼 만하지 않은 것이 없다. 어찌 한 번 바다를 본 것으로 그가 본 것을 크다고 여겨 마침내 천하의 물을 폐기할 수 있겠는가.<sup>24)</sup>

23) 記는 기록 행위와 해석 행위가 결합되어 敘事, 寫境, 議論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된다. 누정을 대상으로 지어진 누정기의 경우 해당 건물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서술이 중심이 되는 것을 正格으로 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기에 다양한 변주가 가해졌다. 누정기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안세현, 『누정기를 통해 본 한국한문산문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5의 제2장 참조.

24) 閔遇洙, 『貞菴集』 권9, 「湖海亭記」, 한국문집총간 215, p.436, “孟子曰: ‘觀於海者, 難爲水’ 朱子釋之曰: ‘所見既大, 則其小不足觀也’ 然天下之水, 自湖川江潭以至陂澤間溪, 其數亦多矣 是皆各擅其勝 無不有可觀者焉 何以一觀於海 大其所見 而遂廢天下之水哉?”

이 작품은 시작부터가 기존의 통념을 뒤엎는 강한 破題로 이루어져 독자에게 충격을 준다. 『觀海』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格言의 하나인 “바다를 본 사람은 (어지간한 물은) 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맹자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어지는 내용을 좀더 읽어보면 그는 맹자의 말과 주희의 풀이를 사람들이 그 문면만 대강 보고서 작은 것들을 살펴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맹자의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기는 한다.<sup>25)</sup> 그러나 작품 첫머리에서 『맹자』를 인용하고서, 곧바로 “그러나[然]”로 전환되는 작품의 전개가 독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함은 贅言을 요구하지 않는다. 작자가 이러한 방식의 파제를 하였던 이유는 사람들이 바다와 같은 큰 경관에만 만족하여 그 이외의 것들은 무시하려 들 수 있음을 독자들로 하여금 통렬히 반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외의 장관’이란 물론 이 작품의 메인 제재인 호해정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어서 민우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觀於海者’, 즉 큰 것만을 보고 거기에서만 가치를 찾으려는 부류를 “객기에 부려진(客氣所使)”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관어해자’는 이렇게 객기에 휘둘러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것들을 아울러 기를 잘 배양하는 사람,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豪傑之士’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큰 기운을 잘 배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호해정이라는 논리이다.<sup>26)</sup>

그렇다면 호해정에서 보이는 경관이 어떠한지 이렇게 양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 작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묘사를 하지는 않았

25) 같은 글, “大抵觀水者, 必盡觀天下之水, 然後方可以盡其水之理而無不備矣; 聽言者, 必盡聽天下之言, 然後方可以盡其言之理而無不明矣. 苟徒取其大而略其小, 則所謂大者, 有未盡耳. 蓋孟朱之言, 只論其大體, 不以辭害意可也.”

26) 같은 글, “所謂客氣者, 多由於徒慕其大, 而不察於微妙也. 使其合大小精粗, 而無所遺焉, 則乃合於知言養氣, 而方可謂善用其氣者, 此真孟子所謂豪傑之士也. 然則觀海之豪氣, 未必有妨於學道, 而亦豈不反有益也哉?”

다. 대신 다음과 같이 작가 자신이 호해정을 찾아가 그곳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광경을 상상하여 서술해 놓았다.

다른 날 한 번 가서 동해의 장대한 파도와 內·外湖의 빼어난 풍경을 마음껏 관람하고, 주인과 함께 누대에 올라 침상에 누워 孟子의 뜻을 주고받으며 客氣를 사라지게 하고 浩然之氣를 발양한다면, 이 또한 김 선생(호해정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三淵 金昌翁을 가리킴—인용자)이 후인들에게 바라는 바일 것이다. 주인의 뜻이 어찌할지는 잘 모르겠다. 정자의 뛰어난 경관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올라 바라본 적이 없고, 또한 이미 김 선생의 시에 갖추어져 있으니, 보는 자들은 마땅히 스스로 알 것이다.<sup>27)</sup>

위 인용문에서 민우수는 호해정에서의 “장대하고” “빼어난 풍경”을 마음껏 관람하고서(觀海) ‘객기’를 없애고 ‘호연지기’를 발양하는 것이 김창흡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작가 자신은 아직 그곳에 가본 적이 없고, 일찍이 이곳에 머무른 적이 있는 金昌翁의 시<sup>28)</sup>에 이미 충분히 그 경관에 대해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상세한 묘사를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요컨대 민우수 역시 바다의 풍경을 관람하여 그 기상을 함양하는 것이 호연지기를 배양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보았던 이언적이나 홍성민의 논의와 유사한 맥락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7) 같은 글, “他日一往 縱覽東海之壯濤與內、外湖之奇勝, 而與主人登樓臥床, 上下孟氏之旨, 以消除客氣, 而發其浩然之氣, 則此亦金先生所望於後人者也, 未知主人之意, 果何如哉? 若亭之勝槩, 余未嘗一登臨焉, 且已具見於金先生詩語, 覽者當自知之.”

28) 작품 내용에 서술된 바와 같이 김창흡은 66세 때인 1718년(숙종 44)에 이곳에 와 8월에 오대산으로 유람을 떠나기 전까지 상당 기간을 머물렀다. 이 기간 호해정의 승경을 노래한 작품으로 「湖海亭, 次李玉山韻」 연작 2수(『三淵集 권 15), 「湖亭雜詠」 연작 5수(같은 책) 등을 남겼다.

#### IV. 맺음말

이 논문은 조선 시대의 한문 산문 작품 중에서 ‘觀海’를 제재로 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바다는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영원불변의 항상성을 지닌 존재인 동시에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광대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물리적인 관찰 자체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소용의 관물설을 수용하면서도 주체적 시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 결과로 파악된다.

이러한 바다의 이미지는 ‘관해’를 제재로 한 한문 산문 작품들의 내용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조선 시대의 ‘관해’ 제재 한문 산문 작품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조선의 문인들은 바다의 형상을 도덕적 자기 수양과 학문 연마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둘째, 바다의 광대하고 호한한 모습에 주목하여 이를 개인의 養氣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위에서 나열한 ‘관해’ 제재 한문 산문의 특징들은 결국 ‘관해’ 행위를 윤리적 機制로 수렴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 시대 문인들이 얼마나 이념적 지향성이 확고했는가 하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 논문에서 검토한 사례들을 포함하여 ‘관해’ 주제 산문작품들을 폭넓게 검토해 보면 그 논의가 주로 심성론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선 성리학이 심성론 위주로 발전해 왔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 및 일본의 문인들이 ‘관해’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인식을 지녔는지 비교문화적 시각에서 연구를 좀 더 진전시킨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個人性과 哲學性이 상대적으로 높은 작품들을 검토 대상으로 한정하였던 탓에 정치적 입장에서 바다에 대해 고찰한 작품들, 그리고 바

다의 신을 대상으로 지어진 祈雨祭文 등은 논외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류의 작품들은 그 양과 수의 측면에서 충분히 별도의 논문을 구성할 만한 것들이므로<sup>29)</sup> 조선 문인들의 바다 인식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주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향후 다른 지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29) 이를테면 기우제문은 한국문집총간에서 검색되는 것만 해도 수십여 편에 이른다.

〈參考 文獻〉

- 李山海, 『鵝溪遺稿』,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李彦迪, 『晦齋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閔遇洙, 『貞菴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成 倪, 『虛白堂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邵 雍, 『皇極經世書』, 사고전서본.  
申錫愚, 『海藏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柳麟錫, 『毅菴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李源朝, 『擬窩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張顯光, 『旅軒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洪聖民, 『拙翁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 高懷民 저, 곽신환 역, 『소강절의 선천역학』, 예문서원, 2011.  
안세현, 「여현의 인문 정신과 산문의 계보」, 『동양고전연구』 41집, 동양고전학회, 2010, pp.62-90.  
안세현, 『누정기를 통해 본 한국한문산문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5.  
윤재환, 「17세기 초 대명 해로사행의 해상 사행시」, 『한국문화과 예술』 22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17, pp.31-68.  
정병석, 「旅軒 張顯光의 太極에 대한 새로운 해석」, 『민족문화논총』 54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3, pp.465-492.  
최강현, 「한국 해양문화 연구」, 『성곡논총』 12집, 성곡문화재단, 1981, pp.235-265.  
최영호, 「한국문학의 바다, 그 재발견의 의미」, 『한국한문학회연구』 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pp.21-48.  
최원진, 「旅軒 哲學에서 太極의 包括의 一原性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27집, 한국유교학회, 2006, pp.147-180.  
최재남, 「한국 고전문학과 바다에 대한 인식」, 『한국고전연구』 2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pp.5-47.



## Abstract

*What did the Joseon literati see in the Sea?*

*-An Analysis of prose works with the theme of Contemplating the Sea(觀海)-*

Kim Kwang-nyeon\*

In this article, I tri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lassical Chinese prose works of the Joseon Dynasty with the theme of contemplating the sea.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literati thought that the sea was eternal and vast. In particular, it was emphasized that the essence should be understood with the 'eye of the mind' rather than the physical observation itself. I think this is the result of the development in a way that embraces the theory of GuanWu(觀物) but also emphasizes a subjective perspective.

The image of the sea also had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contents of classical Chinese prose works on contemplating the sea. The classical Chinese prose works under the theme of contemplating of sea during the Joseon Dynasty have two characteristics: First, the literati of Joseon wanted to use the shape of the sea as an opportunity for moral self-discipline and academic discipline. Second, they wanted to use this as an opportunity to cultivate individual spirit by paying attention to the vastness and breadth of the sea.

【Key words】 Contemplating the Sea(觀海), Sea, Magnanimousness(豪放), Nourisher(養氣), Classical Chinese Prose

투고일 : 5월 21일, 심사완료일 : 6월 8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Chinese Characters &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Korea University / light1979@korea.ac.kr

